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의지와 정신의 표상

고목죽석도(枯木竹石圖)

고목죽석도는 겨울이 되어 물기가 말라 바짝 마른 나무 줄기나 이미 죽어 아무데도 쓸 수 없는 나무를 그리고, 그 옆에 청초한 대나무 군락과 묵묵(默默)한 바위를 그린 그림으로, 화려한 색채와 구도를 자랑하는 화조나 서양화와는 다른 정신적인 의미를 담은 그림이다.

본래 문인화의 한 양식으로 화훼(花卉)의 한 화제로 유명한 그림이다. 당대(唐代)의 송석도(松石圖)나 오대(五代)에서 북송(北宋)에 걸쳐서 그려졌던 산수화 중에 등장하는 마르고 오랜 고목이 그 시초라고 한다. 특히 북송시대에 그려졌다고 전해지는 소동파(蘇東坡)의 고목도는 기록으로만 전하고, 전칭(傳稱)의 작품들이 전한다.

우리나라의 서화가들 대부분은 거의 다 이 그림을 그렸다. 특히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의재 허백련, 목재 허행면 등을 비롯한 많은 화가들과 구한말과 조선시대의 우봉 조희룡, 소치 허련 등 대가들도 하나같이 그렸던 그림이다.

소치 허련(小癡 許鍊) 선생의 자서전적 기록인 <몽연록(夢緣錄)>에 의하면, 그가 1849년 음력 정월(1월) 보름날 창덕궁(昌德宮) 낙선재(樂善齋)에 불러 들어가 그림을 좋아했던 현종임금 앞에서 임금이 쓰는 벼루에 먹을 갈아 지두(指頭, 손가락)로 부채에 매화를 그리고, 황공망(黃公望)의 산수화를 감상한 후 소식(蘇軾)의 전칭철 끝에 고목죽석도를 그렸다고 한다.

유배지 제주도에서 지위와 권세를 박탈당하고 지내며 추운 겨울을 그린 추사의 세한도(歲寒圖, 국보 제180호)에 그려진 소나무와 잣나무도 사실은 고목죽석도의 의지와 정신을 표상(表象)하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몽고족 원(元)나라 지배하에 있던 한족(漢族)의 문인화가들과, 만주족의 지배하에 있던 명말 청초(明末清初)의 학자들이 정복자에 대한 무언(無言)의 저항수단으로 그려서 전파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일제시대에 많은 우리의 문인화가들이 그린 이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필자가 가장 그려 보고 싶은 그림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12월 9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348건(국보 72건, 보물 276건)의 지정 명칭을 지정 변경 예고했다”며 “불교회화는 불화를 통칭하는 ‘탱(幀)’, ‘평화(幀畫)’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해 표기했다”고 밝혔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대부분의 조선시대 불화, 불상들은 화사(畫師)인 스님들과 불보(佛母)인 스님들이 제작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존한 불화 중에 탱(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가장 빠른 예는 일본 근진(根津)미술관에 소장된 이미



두산 정수원 작. '고목죽석도'

한족의 문인화가, 청초의 학자들 무언의 저항수단으로 그린 그림 허백련·조희룡 등이 즐겨 그려 “탱화를 ‘圖’로 바꾼 문화재청 답답”

타어래탱이라 한다. 고려시대인 1306년에 그려졌는데, 화기에 ‘신화성미타일탱(新畫成彌陀一幀)’이라 적혀있다. 그 이후의 상당수의 불화는 거의 이 그림이라는 의미의 ‘탱’이라 쓰여 있다.

문제는 불화를 전각에 모시지 않는 일본·중국과는 달리 불화가 불상의 배경으로써 종교적인 감동과 교화를 담당하는 우리 한국의 불화만 ‘탱’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관청(官廳)이 불교계와는 일말의 논의도 없이 부하직원에 지시하듯이 명령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답답함이다.

평화는 투시도(透視圖)나 설계도(設計圖)가 아니다. 사바세계의 중생을 고해로부터 구해내는 신비한 힘을 지닌 영물(靈物)이고 신물(神物)이다. 불교계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당에 들어가 조상의 영혼이 어린 신주(神主)에 적힌 조상의 이름을 바꾸는 몰지각한 일이다.

병자호란이 끝나자 조선인 포로 송환 문제가 대두돼 청(淸)은 송환 조건으로 속전(贖錢)을 요구하고 선양성(瀋陽城) 밖에 속환시(贖還市)를 열었다. 가족이 끌려간 사람들은 가산을 팔아 가족들을 사러 가려는 돈이 모자라서 울부짖는 자식을 버리고, 조상의 영이 깃든 나무조각 신주를 사왔다고 한다. 자식을 버리고, 신주를 사 온 아버지의 눈물은 어찌 그럴까.



동화사 성북박물관장

김양수의 신화(禪畫) 읽기



침묵

산과 들도 침잠에 들었다.
바람마저도 숨 죽이고 그들을 듣는다.
본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삶의 뒷 모습
눈물나게 아름답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허정법종 선사 '눈[雪]'

날리는 눈 봄바람에 나비 춤추는 듯

紛紛飄落冷雲中 (분분표락냉운중)
高巖先成白玉峰 (고악선성백옥봉)
着樹凝梨花滿發 (착수영리화만발)
飛空如蝶舞春風 (비공여점무춘풍)

어지러이 흩날리는 찬 구름 속
산꼭대기 먼저 백옥의 봉우리 되네.
눈꽃은 배꽃 가득 피었나 의심되는데
날리는 눈 나비가 봄바람에 춤추는 듯.

조선 허정법종(虛靜法宗; 1670~1733) 스님이 눈을 보고 지은 시이다. 찬 구름 속에서 흩날리는 흰 눈은 산봉우리를 우선 하얗게 덮고 코앞 나뭇가지에도 가득 쌓여 하얀 배꽃이 가득 핀 듯하다. 날리는 눈송이는 봄바람에 나비가 날짓춤을 추는 듯하다. 스님은 눈앞에 펼쳐지는 눈 내리는 풍경을 그저 특별한 시어의 조각 없이 보이는 대로 평범하게 그려냈다. 눈 오는 광경을 보고 있는 스님의 정서를 ‘배꽃’과 ‘나비’ ‘봄바람’의 시어 속에 담아냈다.

첫 구의 ‘찬 구름’과 끝구의 ‘봄바람’은 봄을 기다리는 바람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시제가 눈이러서 그런지 온통 바탕색이 흰색이다. 흰색 바탕에 빨간색 나비가 배꽃을 희롱하는 생동감이 은근히 숨어 있을 것 같다. 평담(平淡)의 묘미요, 시속에 한 폭의 그림[詩中有畫]이 있다. 동짓달이다. 옛 사람들은 동짓달 추운 겨울이 되면 한지 바른 문에 매화꽃 여든 한 송이를 그려 놓고 하루에 하나씩 매화꽃에 색깔을 입혔다. 이제 마치

막 매화꽃을 붉게 물들이고 창문을 열면 추운 겨울을 지난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다. 매화향이 한지에 그려 놓은 매화에도 스며들어 봄으로 맞이한다. 살아있는 매화향이 그려놓은 매화로 인해 향기가 배가 된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이기기 위한 선조들의 멋스러움과 여유, 그리고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구구소한도(九久消寒圖)의 이야기다.

운문 끝에 매서운 바람이 새벽 별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절집에도 추우면 추운대로의 겨울나는 맛이 있다. 그럼에도 수행자조차 추우면 보일러 스위치로 먼저 손길이다. 눈길 이 간다는 어른스님의 적나라한 현실지적에 구구소한도의 이야기는 학인들의 가슴마다에 하나의 매화꽃을 그려 봄이 되면 향기를 피울 것이다.



원법 스님(문사종 강강·조계종 교수이사리)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접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연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